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4월27일(금) 금요기도회는 학생들과 함께 특별찬양예배로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4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최성국 집사 (시편 133편)

이번 주 친교: 전교인

다음 주 친교: 김행란 집사, 황인선 사모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주일예배

-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인사 및 광고(Greetings and Announcements)-----인도자
-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 찬송(Hymn) ----- 165장 (통155장) “주님께 영광”(Thine Is the Glory) -----다함께
-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Psalm) 114편 ----- 한주루 권사
- 부활절 특송 ----- 주일학교
- 부활절 칸타타 ----- 세광 찬양대
-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 인도자
- 유아세례 ----- 수세자: 홍해인 (홍승용/권수정) ----- 인도자
-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John) 11:17-27 ----- 인도자
- 설교(Sermon)----- “네가 믿느냐?”(Do You Believe This?) ----- 이민영 목사
- * 찬송(Hymn) --- 160장 (통150장) “무덤에 머물러”(Low in the Grave He Lay) ---다함께
-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도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풍성한 생명(8): 고난 (요15:18-19; 16:33; 시69)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란 말은 세상을 떠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현실인 세상 속에 살지만, 고난을 이기신 예수와 함께 승리함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육신의 생명 뿐이라면 고난이 많은 것은 풍성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 예수로 인해 얻은 생명에게는 고난도 풍성한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 받는 것이 예수님 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범죄하여서,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기왕 고난이 현실이라면 욕심 부리다가, 죄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말고 주님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으시다.]

억울한 고난은 삶의 현실이어서 참으로 현실적인 말씀들이 시편에는 그런 사람의 심정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시편 69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조목조목 아뢰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호소들은 참으로 실감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뿐이라면 미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호소이고, 긍휼 없는 저주이며, 분수를 모르는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호소는 능력이 됩니다. 참으로 고난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조목조목 아뢰는 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원인을 파악해 지적하거나, 당연한 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자기완 상관 없다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조목조목 아뢰는 것은 훈련입니다. 속상하고 원망하며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자기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애써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는 점잖은 말로 기도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나오는데로 한탄합니다. 조목조목 아프고 약한 것 억울하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능력인 이유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조목조목 불평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도우셔서, 때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해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기준 앞에 자기도 똑같이 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악함을 모릅니다.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늘 핑계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뉘우친다 할지라도 이미 저지른 죄악의 끔찍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객관적인 판단 뿐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을 이해하고 감사 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님께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당하셨습니다. 왜 악을 두고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죄악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만 내리신 게 아니라 당하셨습니다. 그 끔찍함을 겪으셨습니다. 자기 정당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권세가 끝장 났습니다.

사실 악한 자를 저주하는 기도(실은 완전한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자기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는 기도(사실은 완전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는 십자가에서만 완전히 응답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악의 끔찍함을 다 당하셨습니다. 행악자에게 내려달라고 한 저주들이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공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예수의 공로로만, 그 예수의 순종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뤄졌는데, 우리 행위와 공로로는 어림 없으니 예수님의 의와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는 자의 가장 현실적인 기도는, 그 고난을 함께 하시고 담당하신 예수로 인해 온전히 이뤄졌고 공의와 사랑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현실이라면 부정하거나 감추지 말고 주님께 조목조목 아뢰십시오. 알아주십니다. 설사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도 회개할 능력을 주십니다. 애매한 고난은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아픈 자를 위로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같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볼 값을 이미 다 치르셨고, 내가 답을 내려주지 않아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